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도교육청, 제도 추진 단계적 이행 방안 발표

특목고 포함 일반고, 올 신입생부터 부분 시행

'핵심' 미이수제, 2025년 신입생부터 본격 적용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달 31일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도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기초소양과 기본화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미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고교학점

제는 2020년과 2022년부터 각각 적용되고 있으며, 특목고를 포함한 일반고는 2023년 신입생부터 부분 시행된다.

학점제의 주요 골자는 과목 이수 기준과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이며, 학점제의 핵심인 미이수제는 2025년 신입생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2023학년도 기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는

새로운 2022개정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미이수제를 포함한 고교학점제가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일반고 대상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2개교 준비학교 95개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모든 학교가 고교학점제 준비 여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자원을 위해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한 학교별 컨설팅 및 워크숍, 고교학점제 역량강화 연수, 중학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정책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 사업도 지원한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도약지역을 운영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늘리는 소수학생 선택과목 운영 지원 및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협력형 공동교육과정,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읍·면단위 소규모 학교의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와 찾아가는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나아가 14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중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다양한 형태의 수업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으로 28개 고등학교에 교과교실제 재구조화와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조성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은성 기자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안내

도교육청, 2023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

맞춤형 특수교육·통합교육 지원 강화 등 주 내용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달 31일 창조내(별관) 시청각실에서 2023년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를 열고, 제6차 전북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도내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50여 명이 참석,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중심 맞춤형 특수교육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직업 교육 활성화 등이다.

먼저,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하기 위해 장애영유아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미래교육 중심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한다. 또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및 특수교육지원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에듀테크 활용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확대한다.

이어,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지원 실현을 위해 통합학급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며, 특수교사의 적극적인 통합학급 지원 및 협력교수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3년도에는 14개 지역교육청에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하고,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정다운학교 운영,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거점기관 운영 등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진로 직업교육 강화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 및 현장실습을 활성화한 취업지원 교육을 확대한다.

정혜영 교육혁신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제공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역량을 높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문학사 인재 양성 산실로 '거듭'

전북대 전자공학부



엠펙테크놀로지를 찾아 현장실습에 나선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 학생들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가 반도체 관련 국내 우수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전문학사 인재 양성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공학부는 4차 산업혁명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반도체 전공트랙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2위의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기업인 엠펙테크놀로지와의 협약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현장실습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로 반도체 산업에 착수했다. 2021년 매출액은 3조 1,223억원, 전 세계 임직원 약 3만 명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세계적 기업이다.

이에 전북대 전자공학부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반도체 분야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해 국가 거점국립대학으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이 프로젝트로 지난해부터 실무중심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16명의 학생을 선발해 채용연계 표준형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 반도체 후 공정 엔지니어를 양성했다.

이러한 맞춤형 실무 교육을 받은 학생 16명 중 15명이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갖춰 올 1월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한편 엠펙테크놀로지는 현재 세계 2위의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기업으로, 1968년 대한민국 최초

도교육청, 인성교육

강사단 9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인성교육 시행계획 및 2023년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강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덕성과 시민성을 갖춘 실력 있는 학생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강사단을 구성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모집분야는 인성교육은 언어순화, 배려와 존중, 효와 예절 등으로 교직원과 초·중·고학년 학생 대상이다.

또 민주시민교육분야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참여활동, 학생주권자교육, 기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분야다. 교육대상은 교직원과 초·중·고 학생이다.

강사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강사지원서, 수업지도안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오는 9일까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서류합격자 발표는 17일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이후 합격자는 24일 열리는 강사단 연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강사단을 구축해 예와 효,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동 등의 가치를 교육과정과 연계해 배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 수 있도록 역량있는 강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2022학년도 우석 미래교육 포럼 개최

학생지원·교육과정 혁신 등 3세션으로 나눠 진행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지난달 31일 전주캠퍼스 교양관 지역협력세미나실에서 2022학년도 우석 미래 교육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교무위원과 교직원, 학생, 전공 주요 대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지원 혁신을 주제로 진행된 1세션 포럼에서는 최아름 학생상담센터장이 'WOW 더봄 관리체계'를, 임진선 진로취업지원센터장이 'WOW 학생들이 우리와 함께하자'를, 설숙희 교양교육지원센터장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양교육'에 대해 발표했다.

2세션 '교육과정 혁신'에서는 김주영 역량개발인증센터장이 2023학년도 비교과 교육 지원 체계를 이용직 교수학습지원센터장도 교수학습·원격지원교육 지원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남천현 총장은 "지난해 교육혁신의 우수 성과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을 통한 대학 구성원의 혁신역량 강화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날 포럼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 추진과 대학 간 교육현황을 공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평생교육원, 1학기 수강생 모집... 6개 학부 211개 강좌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양병호)은 오는 14일까지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학기 교육강좌는 3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운영된다.

평생교육원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지고 학습기회 제공 및 학습수

요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복지학부, 생활교양학부, 어문학부, 스포츠건강학부, 예술학부, 직업교육학부 등 6개 학부, 211개 강좌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스페인어·스크린 잉글리시·프랑스문화예술기행의

인문학 강좌, 발레·여자축구의 스포츠강좌, 액티브 미술·신명나는 풍물 배우기 취미예술 강좌가 새로 개설돼 이전보다 풍성하게 꾸려졌다.

수강신청은 인터넷(<https://cc.jnu.ac.kr/>), 전화(063-288-0022), 방문(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13) 접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